

[H 갤러리] APRIL COLLECTION

4. 1. – 4. 30.

PHILIP. HAN.

ISCA GREENFIELD SANDERS. 1978 ~ , 미국

4. 2. 금.



Private Conversation | Mixed Media Oil on Canvas | 63 x 63 inches | 2020

iscags.com

Miles Mcenery 갤러리에서는 유망한 컨템퍼러리 아티스트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Braisn Alfred 대다수 작품과 평론도 이곳을 통해 알았다. 한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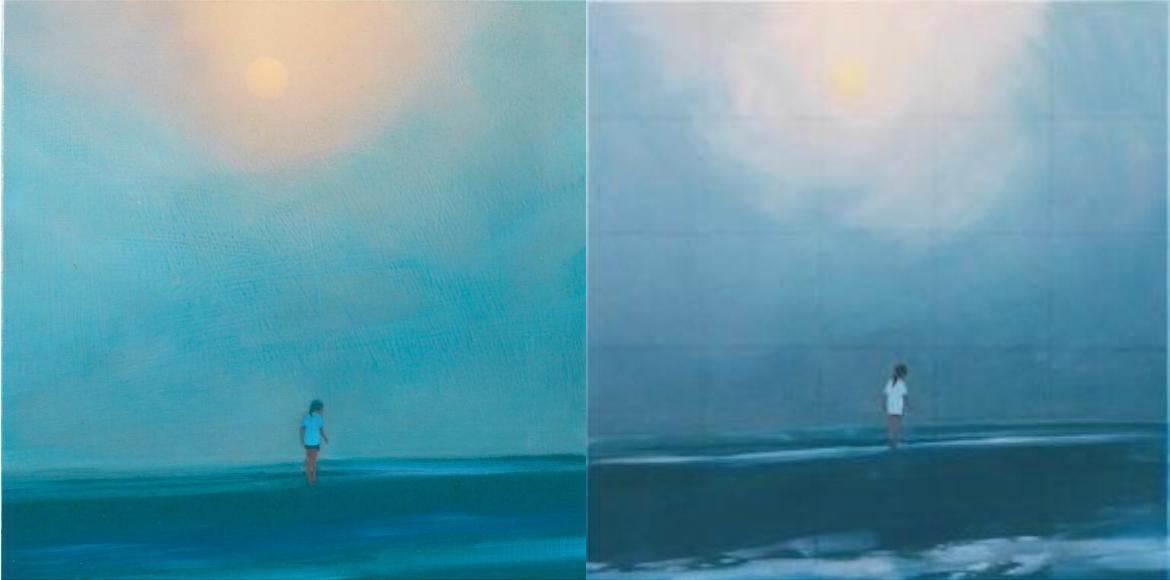
특이한 작품 한 점을 봤다. ISCA GREENFIELD-SANDERS 이다. 풍경을 주로 화폭에 담는다고 소개하고 있다. 일천한 지식으로 봐도 컨템퍼러리 아트 궤적과는 확연히 달랐다. 무엇이 이 갤러리 마음을 사로잡은 것일까. 그 비결은 작품을 완성하는 방식에 있었다.

작가는 우연히 발견한 가족사진을 수채화로 밑그림을 그리고 유화로 완성한다고 한다. 여기까지 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작업이다. 하지만 이 갤러리 눈에 띈 것은 ISCA 특유의 그리드 방식 즉, 사진을 반의 반 반 접은 후 펼치면 사진 특유의 질감이 드러난 선이 나타난다. 이런 사진 질감을 작품 소재로 쓰는 디테일 함이 관객 기억 속을 파고들어 어느 때 나도 그런 추억 하나 있을 것 같은 감상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ISCA 작품은 내 서랍 어딘가에 이 풍경과 흡사한 사진 한 장쯤 분명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끔 관객이 자기 기억을 스스로 탐구하게 한다는 말이다. 갤러리 평을 이해하고자 몇 작품을 더 감상하던 차 2020년 작품이 상쾌했다. 앞서 갤러리 평을 읽느라 지친 뇌에 호울스 기운이 가득한 느낌이다. 특히 이 작품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색채, Blue 계열 작품만 편식하듯 골라 나열하면 작품 소재로 쓴 사진 찍은 시간 대를 얼추 예상해 보는 뜻밖의 재미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다. 작가가 발견한 그 사진은 빛 바랜 흑백 사진이었을 것이다. 한데 그 사진을 Geoffrey Johnson 이 발견했으면 세피아 톤이었겠지만 ISCA 손에서는 젊은 기운이 가득한 Blue 가 된 것이다라고. 기억을 색으로 드러내는 방식이 개성 만점이다. 이 흥이 꽤 좋다. 감상은 그렇고 이 새벽에 비밀 대화라니 살짝 긴장감이 든다.

4. 3. 토



ISCA GREENFIELD-SANDERS.moonbeach.2017. (그림 좌: 그리드 효과)

galeriemagazine.com

괴괴하고 흥흥한 소식을 떨어내려 걸었다.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는 괴로움, 누구도 내 말을 납득하려 들지 않는 외로움은 걷는 동안 계속이다.

마침내 분노가 끓어올랐다.

더는 하소연할 곳 없어 벽을 향해 욱지거리라도 날리려고 광광 소리로 쏘아 댔다. 이 마저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비장한 마음이 갈 곳이라고는 할 찰나,

파도 한 무더기 달려온다. 발로 냅다 걷어차도 또 온다. 어느 새 바다에 서 있는 일도 신비로운데 하얀 입김 호호 내며 내게 달려들고는 내 몸도 살핀다. 간지럼이 기분 좋다.

천진난만함에 나도 모르게 아, 기분 좋다 큰 소리 내고 웃었다. 그때서야 깨달았다. 달님이 여태 나를 따라와 준 것을 말이다. 달이 크게 떴다.

Xi Pan. 1971 ~ , 중국

4. 9. 금



artistsandart.org

Xi Pan, 지인에게 이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느냐 물었더니 '시판'이라는 답변이 왔다. 발음할 때 조심해야겠네라며 웃었다. 여러 작품을 보며 강렬함 놀라움 숨막힘 에로티시즘 등등 낱말이 끊임없이 떠 올랐다. 클림트, 에곤 실레, 모딜리아니 화풍이 자유자재로 깃들여 있다는 점은 이 작가를 애정하는 갤러리 공통 사항인 듯싶었다. 한데 여기에 작가 한 사람이 빠졌다. Richard Burlet(1957 ~ , 프랑스)이다.

클림트에 존경심으로 그림을 시작했다 할 만큼 작품 소재와 표현 기법이 모방이라는 비난도 감수한 그였다. 하지만 지금 리처드를 대하는 시선은 달라졌다. 클림트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계승한 작가로 재평가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동안 그의 작품 속에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랬었다. 그런 기억이 시판 작품에서 새로운 양상으로 소생했다.

클림트 - 리처드 버넷 - 시판, 이렇게 줄을 세우고 세 작가 작품을 나란히 두고 보면 그야말로 클림트 100년이 무엇을 남겼고 아울러 보존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 눈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한데 두 작가에 대한 기본 정보가 클림트 자료 만분의 1만큼은 될까 싶을 정도다. 대부분 개인 블로거에 의존해야 한다. 여튼간에 시판 작품을 발견한 일은 잃어버렸으리라 체념한 레고 한 조각을 발견하고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소리치며 쇼파 위를 방방 뛰고 싶을 정도다.

Gustav Klimt & Egon Schiele



(우) Gustav Klimt. 1905. (좌) Egon Schiele. 1914.



Xi Pan. 2008.

4. 10. 일.



Pinter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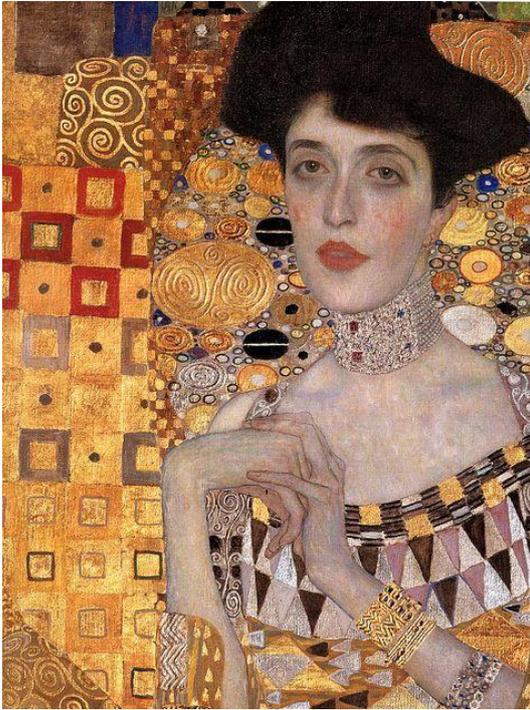
Xi Pan에 대한 소개와 작품 평을 다룬 칼럼(젊은 문화 예술 소식을 다루는 compostimes, 스페인어) 한 편에서는 시판 작품을 두고 '마티스의 색채 클림트에 대한 존경'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정보까지 포함하면 시판 작품에는 '클림트' '에곤 실레' '모딜리아니' '마티스' '리처드 버넷' 작품 오마주 또는 소재 공유쯤으로 이해할 법하다. 한데 모방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그 까닭은 뭘까?

칼럼에서 발견한 한 대목이 답변으로 충분했다. 관객을 보지 않는 작품

주인공의 비정상적인 자세를 외설처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주인공 시선을 따라가면 무엇을 숨기고 있고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감상 포인트를 발견한 갤러리는 그때부터 게임을 시작한다고 한다. 마치 수수께끼를 푸는 듯한 이 과정은 신비롭고 환상적이다. 클림트 구성력과 마티스 색채감이 시판 스타일로 창작한 볼륨감은 지루하거나 평면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작품 속 주인공이 몸을 돌아눕거나 슬쩍 눈을 뜨고 기지개를 켜는 모습을 보는 은밀함도 있다. 갤러리와 소통하는 시판 커뮤니케이션 방식 같았다. 이 대화 마지막은 본질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외설과 예술 간 경계에서 아슬아슬한 꿈을 꾸는 작가 내면이 내게 묻는 것이다. 예술은 사물 본질을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란 아리스토텔레스 한 마디를 여기로 끌어오면 이 경계는 우리 생각을 무엇인가에 몰두하게 한다.

4. 11. 일.



(좌) Gustav Klimt. Portrait Adele Bloch-Bauer I, 1907 (가운데) Richard Bulet



(우) Xi Pan. 2003. (좌) Amadeo Modigliani. Woman in black dress. Detail. 1918.

4. 13. 화.



(좌)Xi Pan (우) Egon Schiele(1890 - 1918, 오스트리아)



(좌) Egon Schiele(1890 - 1918, 오스트리아) Back act crouching down.1917. (우) Xi Pan(1971 ~ , 중국)

4. 14. 수



Pinterest

바람이 제법 세차게 불어 4월 어떤어떤 기억이 날아가나 싶었다. 목소리를 잊으면 기억에서 사라지고 서랍장 추억이 된다해서 다 가져가도 좋으니 목소리는 남겨 달라 바람에게 빌었다. 미련한 짓이라고도 하고 소중한 기억이니 잘 간수하라고도 한다. 둘 중 하나는 선택해야하는 4월 하루, 철쭉

꽃이 눈치 없이 환히 꽃봉오리를 열었다. 바람에 연연하던 내 모습과는 다르게 북받쳐 오르는 감정 그대로를 펄펄 쏟아 붓는다. 행복하고 즐거운 일을 스스로 만드는 꽃나무가 내 앞에 있다. 안절부절 수선 떠는 내게 이른다. 그간 써 본적 없는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기억을 맘껏 쓰고 지금은 저지를 때라고 말이다.

4. 15. 목

Xi Pan 작품 소재 대부분은 '여성' '누드' '문양' '색채'로 수렴할 수 있다. 작가 세계관은 갤러리를 응시하지 않는 시선에서 찾는다. '말하고 싶지 않은 무엇'이 있다는 것이다. 혹자는 그 무엇을 두고 '예술과 외설의 경계' 또는 '가치'라고도 하고, 혹자는 여성 특유의 내밀한 감정의 동요라고도 말한다. 그런 점에서 여러 칼럼니스트와 블로거가 호평하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다. 그 까닭이 궁금했다.

Xi Pan 이 작품은 작가가 선호하는 소재와 세계관을 제법 잘 드러내고 있다. 소재 면에서 '여성' '누드'는 Schiele 표현 기법이 보이고, 구도는 Modigliani, 문양은 Klimt 가 모티브인 듯하지만 독자성을 띄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마지막으로 색채는 Matisse 두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듯싶었다. 마티세 두 대표작은 레드 블루 그린 세 색채 조합이 뛰어난 작품이다. 마티세를 각인한 작품이기도 하다.

짐작건대 마티세 Harmony In Red 작품 속 세 색채를 Xi Pan 작품 속에서 찾을 수 있다. 마티세 이 작품에서 얻은 영감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었는가 보다. 다만 중심 색을 Red에서 Yellow를 바꾸는 시도가 꽤

흥미롭다. 문양은 마티세 풍을 따르지도 Klimt를 따르지도 않아 보인다.
오마주 끝에 독자성을 보이려는 다짐이었을까 싶다.



Henri Matisse(1869 - 1954, 프랑스). Harmony in red1. 1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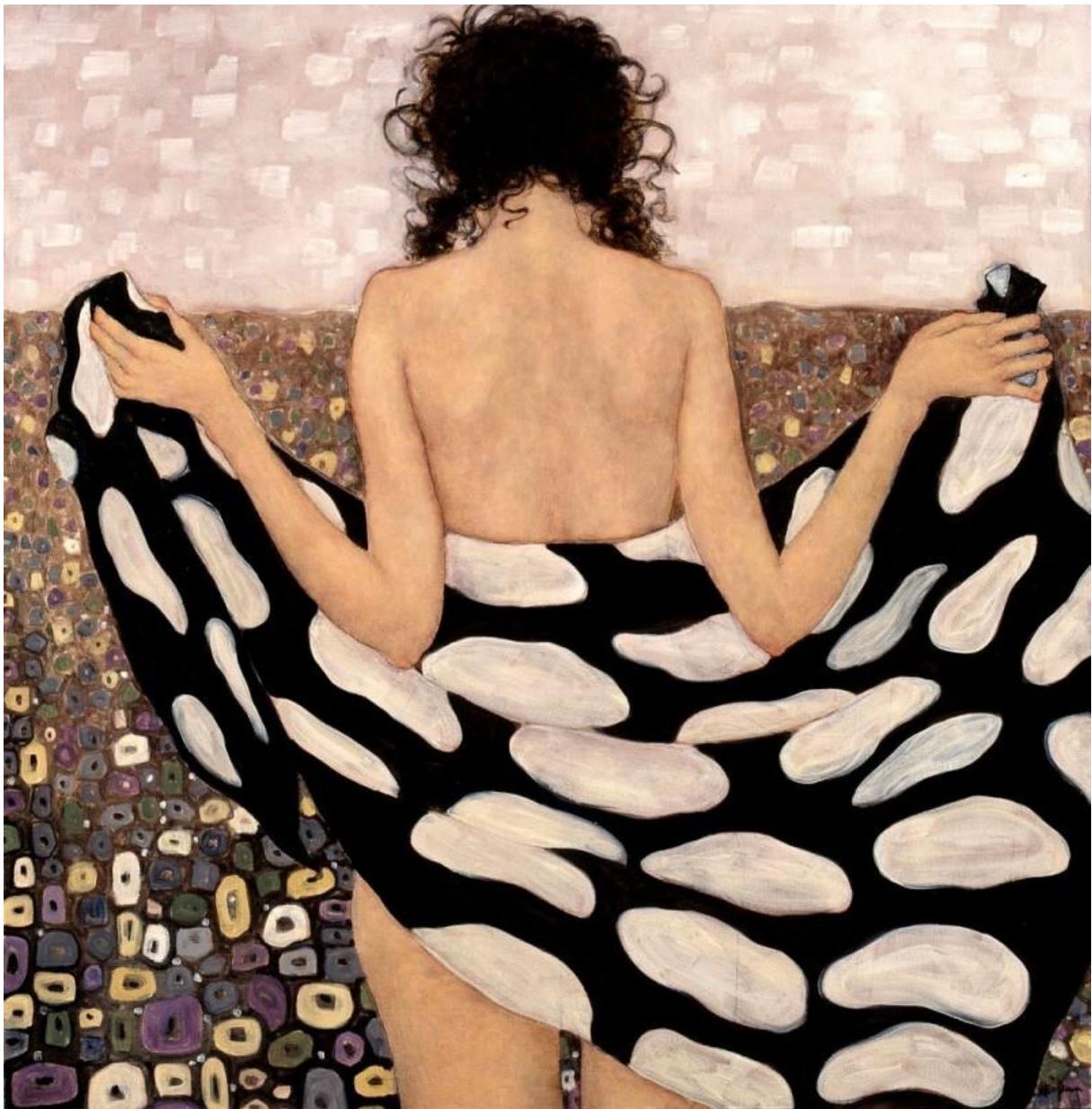


(좌) Xi Pan (우) Henri Matisse(1869 - 1954, 프랑스). The Cat with the Red Fish. 1914.

마티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Cat 시리즈 작품 중 이 작품을 Xi Pan
그림을 보며 떠올린 것은 두 작품 주인공 손과 발 제스처가 닮았기
때문이다. Xi Pan 작품 속에 마티세 어항을 가져다 두면... 웃음이 절로 난다.

이렇게 두 작품을 나란히 두고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항을 가지고 노는 고양이를 보고 있는 저 여인이 우울한 자기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잠시 고양이로 사는 삶을 동경하고 있는 Xi Pan 자신을 그린 듯 보였기 때문이다.

4. 16. 금



Breeze. 2008.

Xi Pan 작품은 가끔 아슬아슬하다. 이런 내 감상이 자가 검열일는지도 모른다. 하면서도 시판 작품을 끊지 못하는 것은 경계에 서 있는 그 느낌이 좋아 그렇다. 특히 이 작품이 그렇다. 경계에 서 있는 삶 건너편에 시시한 삶이 행복하다는 금언이 있겠다 싶었다. 왜 두 삶을 맞닥트린 것일까. 작품 속 주인공이 감춘 것은 시시한 것 아니면 경계에 선 것 중 하나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감상이 더 흥미롭다. 게다가 내가 보고 있는 것도 그럴 것일까 반문하니 뇌가 쭈뼛한다. 하지만 하루만이라도 내 삶을 바꿀 수 있다고 할 때 이 고민은 깊을 것 같다. 분명한 것은 두 삶 어딘가 어중간한 곳에 현재 내 삶이 있다는 점이다.

4. 17. 토



unnamed-03. 2008.

lapetitemelancolie.net

Xi Pan 작품 속 여 주인공은 누구일까. Klimt, Schiele, Modigliani 뮤즈는 작가와 특별한 관계였다. 하지만 시판과 뮤즈와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칼럼니스트들조차 이와 관련한 에피소드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짐작건대 작품 속 모델 대부분은 시판 자신이 아닌가 싶다.

실제 사진과 유사한 점이 꽤 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unnamed 제목을 붙인 작품 대부분이 시판을 닮아 보인다. 한데 이 작품은 좀 많이 다르다. 2008년도 작품에 등장한 뮤즈보다 한참 나이 어린 소녀 같았기 때문이다. 젖살이 역력한 볼과 처음 퍼머를 한 느낌, 부자연한 포즈 이 셋 조화가 좀 어색하다.

반면에 Red 드레스와 클림트 풍 금색 배경은 세련미가 넘치고 색채 조화가 과감하다. 얼른 어른이 되고 싶은 혹은 자신의 소녀적 한때를 모티브 한 것은 아닐까도 싶었다. 실체적 진실은 시판 만이 알 것이다. 시판이 그 사실을 말하기 전까지 작품을 감상하며 이야기를 만들고 흥을 돋우는 일은 갤러리 시간이다.

이런 내 추정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다. 2008년도 여러 작품 중 유일하게 감정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 하면서도 목 주변과 어깨 한 부분이 어떤 상처 같은 착시를 일으킨다. 진실은 시판의 뒤통이고 상상은 내 뒤통이다.

Jeremy Miranda. 1980 ~ , 미국



Searching. 2012

zen.yandex.ru

Jeremy Miranda(1980 ~, 미국) 이 작품이 시작이다. 첫 시선은 에머랄드 빛 심연 속에 있는 잠수복 사람이다. 분명 무엇인가에 끌려 들어간 것 같은데 그 까닭을 도통 모르겠다. 이를 동안이나 이 그림을 보고 또 보고 만지작만지작 썼다 지웠다 그러고 있다. '기억과 풍경'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를 오가는 복잡한 공간 환경'이 제레미 작품 소재이고 특징이라고 한다.

이 짧은 평을 도화선 삼아도 무엇을 초점 삼아야 할 지 모르겠다. 이것저것 기억을 떠 올려도 봤지만 뽀족하지 않다. 이렇게까지 공들일 일이 아닐 터인데 이렇게 매달리듯 하는 내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그러던 차 컨템포러리 아트가 떠 올랐다. 다면적이고 다양한 관점을 반영한다는 말도 기억났고, 공통 주제는 정체성, 신체, 기술, 세계화, 이주, 사회, 문화, 기억, 시간 흐름, 비평이라는 이전 글도 찾았다. 브라이언 알프레드 작품을 시작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었다.

제레미 미란다 역시 컨템포러리 아트 경향이랄만 했기 때문이다. 해서 든 생각이 제레미 작품에는 경계가 분명하다. 하지만 내 자신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다. 마음이 불편도하다가도 위안도 받고 그런다. 알 것 같다가도 이내 다시 모호함에 빠지고 만다. 마음이 한 없이 가라 앉다가도 안간힘을 다해 수면 위로 올라도 간다. 나를 둘러싼 환경은 사실 그 경계가 분명했다. 그 경계에 선 내 자신이 갈피를 잡지 못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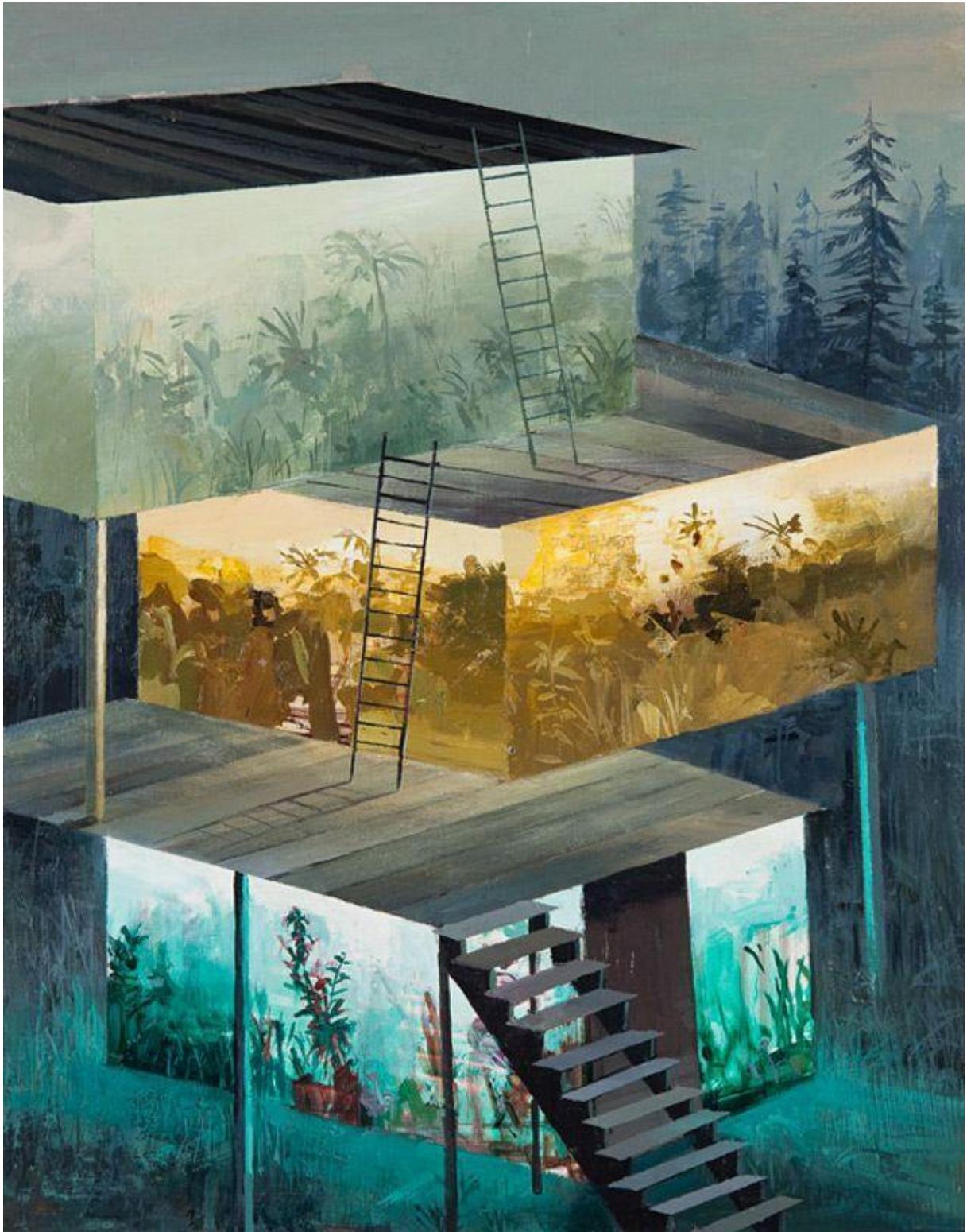
그 동안 환경 탓으로 돌리고 나를 이처럼 힘들게 한 것이 애매한 경계 때문이라고 한 듯싶었다. 바다 아래로 내려와 나를 보니 그랬다. 차일피일 미루고 결정하지 못한 것은 나였고, 내 문제였다.

4. 22. 금



Jeremy Miranda 연도별 작품 중 2012 ~ 2013년 대 그림을 보면 생각이 깊어진다. 그 생각 끝에 얻은 한 낱말은 현대인 이었다. 그 상징에 내가 오롯이 있다. 삼각형이 주는 안정감이 위안거리인 이 작품은 외부세계는 황량하기 그지없다. 내 일터일 수 있고 동료와 어울리는 곳이 이럴 수는 없다. 하지만 실제적 진실이기도 하다. 이 점이 슬프다. 이 마음으로는 내일이 있을 리 없다. 이 심기를 건강히 돌봐야 할 시간과 내 공간이 필요하다. 제레미 이 작품이 내게 말을 건다. 무력무력 네 꿈을 키웠던 아직 그 온기가 남아 있는 여기 다락방으로 올라오라고 말이다.

4. 23. 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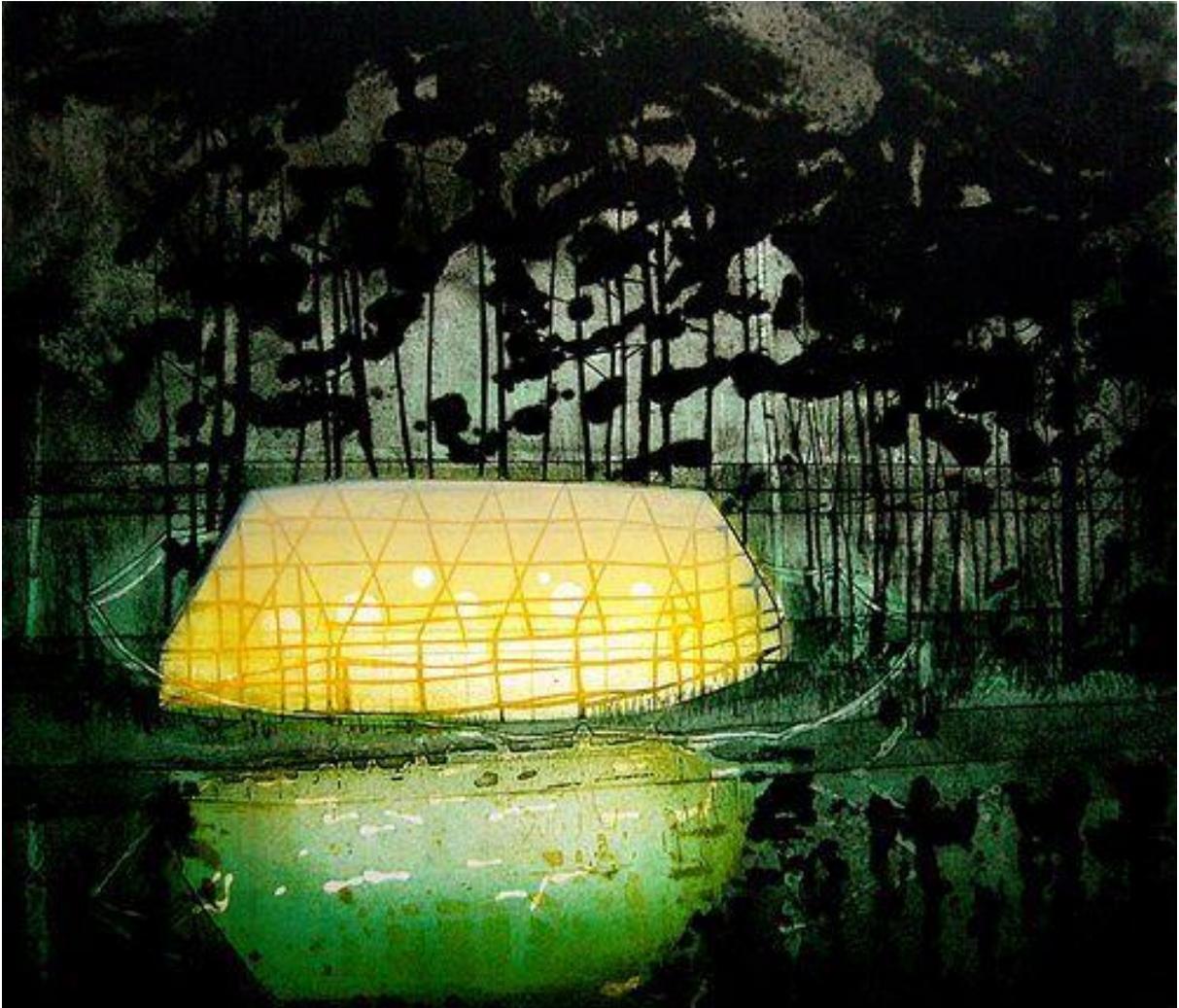
Containers

에셔(Maurits Cornelis Escher, 1898 - 1972) 그림을 연상했다. 사다리 때문이었다. 공간을 다룬다는 점은 비슷하다. 에셔 그림은 현란한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 이를 두고 공간 확장이라고도 하고 무한 반복하는 삶을 질타하기도 한다. 다른 세계를 만나는 방식이라고도 한다. 제레미 작품에서 이런 의미도 찾을 수 있을 테지만 그저 내 안 세계와 내 밖 세계만을 뚜렷하게 구분했을 뿐이다.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사다리였던 것이 에셔와 다른 점이다.

에셔 작품에서 영감을 얻었는지 그것은 모르겠다. 이런 어릿한 비교로는 제레미 작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다. 여러 번 보고 자주 본다. 그때마다 깊이 본다. 도대체 이 작가는 무엇을 본 것일까 묻기도 한다. 돌아오는 답변은 없다. 그럼 다시 묻는다 어떤 기억을 떠올린 것일까라고 말이다. 사다리 타고 올라오라 해서 마음으로 계단 하나씩 밟고 올랐다. 땅 위에서 점점 높아질 때마다 주변 풍경은 새로웠다.

빛이 내 앞에 있으니 아니꼽고 더러운 일들로부터 벗어났다. 사다리 하나를 다 오르자 바깥세상 풍경 몇 개는 다 잊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작해도 될 것 같았다. 이 속 사정이 나와는 다르겠지만 제레미 역시 사다리를 오르면서 내 마음을 안아주고 살피주는 희망의 빛만큼은 꺼트릴 수 없다 했을 것이다. 비록 현재 내 삶은 Containers 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새로운 빛을 일궈 나를 맞이하는 이 영감 얻는 일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없다며 다짐했을 것이다.

4. 24. 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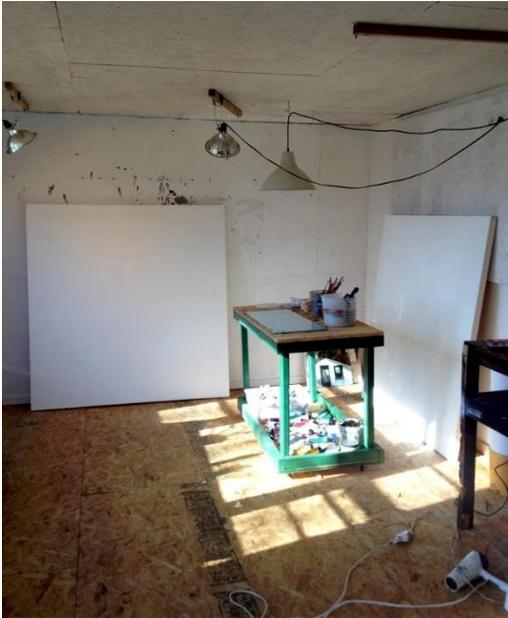


Pinterest

종일 노닥노닥이고 있다. 해야 할 일이 눈앞에서 알짱이는데도 말이다. 이리저리 뒹굴뒹굴하며 창으로 쏟아지는 햇볕을 따라다니기도 한다. 여러 날 중 하루는 이래도 좋은 일이다. 잠깐잠깐 문밖으로 아까 그 햇볕을 쫓다가 들어오기도 한다. 흙먼지 냄새나는 바람을 털어 내는 시늉으로 마치 오랜만에 집 안으로 들어온 사람 행세도 해 본다. 사양이 뒤쳐진 노트북 전원을 켜고 클릭질도 한다. 이 자료가 여기 있었네라며 놀랄 일 없어도

헤진 좌판 키를 보면 한때나마 내 분신처럼 나를 따라 준 일이 떠오른다.
눈을 감고 양손을 좌판에 올렸다. 떠오르는 기억이 있으면 좌판 키가
기억하고 있는 글을 쫓아가려 했지만 맹랑하게도 아무 반응이 없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일까. 그것은 아닐 것이다. 굳이 끄집어 내 시간이 멈춘
듯한 이날을 헤집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칙흑 같은 주변 어둠 속에서
노랑 병아리 심장이 숨을 고르는 빛 만으로도 행복하기 때문이다.

4. 25. 일.



제레미 미란다 스튜디오 사진과 작품

jeremymiranda.blogspot.com

제레미 스튜디오는 미국 북동부 뉴햄프셔 주에 있다. 아일랜드에서

태어났고, 보스턴에서 미술 공부를 시작해 매사추세츠 예술대학 Mass Art에서 학위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 그에게 한 기자(trypticpress.com, Andrew Houle, 2016)가 제레미가 성장하고 활동한 여러 장소가 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물었다. 제레미 답변은 간명했다. 작품 대부분 자연환경은 뉴잉글랜드에서 관찰하고 체험한 것으로 자신의 작품은 그 기억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품 속 칠흙 같은 어둠을 무척 매력적이라고 표현했다. 그 말을 듣고 한 가지는 이해할 수 있었다.

어둠과 대비되는 작품 속 빛은 제레미 자신의 자화상이라는 점을 말이다. 이런 내 짐작을 뒷받침해주듯 제레미는 "스튜디오 작품은 이상한 차원의 미러링을 가지고 있다. 사실은 내 자화상에 접근하는 방법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통상 자화상과는 다른 차원이다. 실제적인 모습을 그리기보다는 자신의 시절 시절을 특정한 장소에서 활동한 기억이 제레미 작품 중심 축이라는 사실이 인상 깊다.

그의 작품을 인상주의에 대한 현대적 명상이라고 평하는 의도를 알 것 같았다. 또한 제레미 작품에서 서사를 발견할 수 없었던 까닭 역시 이제야 깨달았다. 그런 제레미 미란다 최근 작품에는 그를 유명 작가 반열에 올린 '경계'가 사라졌다. 마치 명상을 마치고 성숙한 자기 삶을 찾은 것인가 싶었다.

4. 27. 화.



Pinterest

Library를 소재로 한 작품 여러 편을 본다. 현대인의 명상 작품이라는 말을 실감한다. 배경으로부터 전경으로 이동하는 시선 흐름을 즐기는 것이다. 한데 제레미 작품 배경은 사나운 바다다. 영성하거나 고요하고 괴괴한 점 없다. 그의 기억 속 뉴잉글랜드 바다는 그랬는가 싶다가도 어떤 의미가 있겠지 짐작하면, 그 시절 제레미는 어둠을 무척 매력적이라고 할 만큼 무엇에 사로잡힌 듯했다. 자신의 무언가와 치열하고 사납게 다툰 기억에 바다가 늘 있었다고 느꼈다. 전경은 무척이나 평온하다. 작품 속 빛은 작가

자화상이면서도 갤러리인 내 모습이기도 하다. 물러섬이라고 한 톨 없는
지독히 거친 바다로부터 유일하게 나를 지키고 위안 얻을 수 있는 곳에
내가 빛처럼 있을 때 희망은 배경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내 자화상이다.

4. 28. 수.



Boat House Stove. 2020.

제레미 미란다 Stove 시리즈를 따로 모았다. 이 여섯 작품이 내가 찾을 수 있는 전부다. 작가는 스토브라고 작품 이름을 붙였지만 활활 타오르는 빠아알간 불꽃이 내 심장 같아 후끈후끈하다. 앞서 현대인의 명상 작품으로 알맞다는 한 평론가 말을 공감하면서 그 시각으로 제레미 작품을 보니 어느 것도 명상 아닌 것이 없다. 그중 특히 이 불꽃 시리즈는 정신이 침잠할 때 감상하면 정말 제대로 활기를 얻는다. 눈을 감으면 전성기를 구가할 듯이 내가 활활 타오른다. 훈훈한 기운이 살아 올라오는 이 심상이 좋은 작품이다.

특별한 발견도 있었다. 요컨대 Early Evening(2015) Boat House Stove(2020) 두 작품 외 나머지 네 작품은 비교적 경계가 분명하다는 점이다. 짐작건대 2012 ~

2013년 대 작품으로 여겨진다. 제레미 작품에서 이 스토브 소재가 언제 처음 등장했는지는 좀 더 살펴볼 일이지만 작품 속 빛은 제레미 자신인 점을 감안하면 칠흑 같은 뉴잉글랜드 밤바다(2012 ~

2013년 대) 기억으로부터 점차 안정과 삶을 새롭게 추동하는 무엇인가를 2015년 작품을 기점으로 찾은 듯싶었다. 마침내 제레미가 찾은 새 에너지 정점이 2020년 작품이라 해도 나무랄 사람 없어 보인다. 그가 찾은 것이 궁금했다. 하지만 묻지 않으려고 한다. 제레미 작품에서 내가 찾은 그것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활활 타올라라 내 심장이여~ 제레미도 이렇게 외치며 어둠을 걷어내고 형형색색 쏟아지는 빛으로 자화상을 다시 그리고 싶은 자신을 깨달았던 것일게다.

Linda Alexander ROI

4. 30. 금



lindaalexander.co.uk

꽃이 필 때마다 올해는 보고 싶더이다. 작약 꽃이 사르르 히 필 때는 당신 인기척인가 싶어 마중 나서는 내 모습 참 행복하더이다.

그날 아침 꽃봉을 터트린 작약 꽃 당신을 본 일이 여전히 생생하여 당신을 사모함은 매해 더없이 소중한 내 마음이더이다. 이해는 참 유난스레 더 보고 싶더이다.

Epilog

어릿어릿한 글을 4월 한 달여 동안 성원해 주신 브런치 작가님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글쓰기를 소일 삼다 시피 시작한 일이 글감을 찾다 그림 감상에 이르게 된 일이 놀랍고도 재밌습니다. 작품 감상기를 쓰던 일도 조금씩 평론가 시늉을 내는 제 모습에 웃곤 합니다.

어느 날 향후 10년 후에 무슨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으냐는 질문에 깊이 생각 없이 글쓰기라고 했지 뭐니까. 무슨 일념으로 그리했는지 제가 좀 당돌하기도 했고, 이만한 취미가 또 없겠다 싶기도 합니다. 조지 오웰이 말한 네 가지 글쓰기 어디에도 해당 사항이 없는 일이지만 글을 쓸 때면 꿈을 꾸는 듯합니다. 그런 꿈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진실과 욕망 마지막은 유혹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셋 중 제 글쓰기를 딱 하나 꼬집을 순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꿈을 꾸는 것만은 맞습니다. 이 꿈을 계속 글로 써 보려고요. 여러 작가님께서 보내 주시는 응원의 힘을 한껏 모아 진실 욕망 유혹의 글쓰기를 일삼아 해 보겠습니다.

5월 내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